

# 사료산업 제도개선 없이 축산업 붕괴 막을 수 없다

□ 취재/권 동 원 기자

**미**국의 압력에 일부 농축수산물 수출 개방하겠다고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예시계획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4월.

물론 업계에 직접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힐 중요품목은 대부분 제외되어 불행중 다행이라며 영문도 모른채 방심하고 있는 사이 불과 6개월후 이번에는 GATT에서 97년까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전품목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처음에는 여의도에도 모여 결사반대를 외치며 뭔가 해낼 것 같던 농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적 상황이라고 자위하며 체념상태로 빠져가고 있다. 커진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직접 피해당사자에게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붕괴위기에 처한 농축산업에 보상대책이나 대응정책을 발표했지만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는 부족하

다는 지적이다. 개방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면 실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는 ○○법에 위배되어서, ○○부와 이견이 있어서 등 여러 이유를 나열하며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농림수산부도, 경제기획원도, 재무부도 하나의 정부이지 농림수산부가 별개의 정부이고 경제기획원이 농림수산부와 다른 또 다른 정부는 아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에 대한 인하요인을 양축가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88년 9월 농축수산업 분야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조치에서 축산기자재만이 제외되었다.

이때 이유가 배합사료는 대기업 농장과 영세양축가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대기업 농장 사용분으로 인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1천2백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한때나마 업계가 술렁거렸지만 엉뚱한 정치싸움에 국회에 상정도 못해보고 좌절되었다는 후문이다. 그래도 금년 중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정치권이 급변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변수가 작

용할지 의문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양계 사료 가격은 9%가 넘는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5,500원에 구입하던 사료 한포를 5,000원 이하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 사료원료 무관세로

배합사료 원료 중 옥수수·소맥·대두박은 3%, 기타 곡류·강피류 등은 5%, 타피오카 7%, 어분 10%, 알팔파는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개방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상대국인 미국, 태국 등은 사료원료의 생산국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로는 2% 정도 사료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 각원료별 관세율이 달라 원료구매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곡물이 있어도 고율관세를 적용받는 곡물은 관세부담으로 인해 낮은 관세의 곡물을 비싸게 구입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원료간 상호대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자원이용 효율면에서 상당히 손해도 지적되는 현상이다.

수입개방에 앞서 사료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원칙으로 해야하며 최소한 차등관세를 없애 모든 원

표 1. 사료용 원료 관세율표

품 목	관 세 율						
	89(현행)		변 경				
	기본	잠정	90	91	92	93이후	
옥 수 수	5	3	5(3)	5(3)	5(3)	5(3)	
수 수 수	5	—	5	4	4	3	
소 맥	5	3	5(3)	5(3)	5(3)	5(3)	
호 밀	5	—	5	4	4	3	
키 리	5	—	5	4	4	3	
루 편 씨 트	5	—	5	4	4	3	
타 피 오 카 (펠 랫)	7	—	7	7	7	7	
대 두 박	5	3	5(3)	5(3)	5(3)	5(3)	
알 팔 파	15	—	15	15	15	15	
소 맥 피 쇠	5	—	5	5	5	5	
G. S. P	5	—	5	5	5	5	
채 종 박	5	—	5	5	5	5	
해 바 라 기 박	5	—	5	5	5	5	
면 실 박	5	—	5	5	5	5	
옥 구 르 텐 밀	5	—	5	5	5	5	
어 분	10	—	10	9	7	5	
옥 골 분	10	—	10	9	7	5	
우 지	5	—	5	4	4	3	
당 밀	5	—	5	4	4	3	

※ ( )잠정 관세율임.

료에 동일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 곡산곡류 배정

배합사료에 89년 국산대두박 사용량은 663,352t에 달한다. 국산대두박은 수입대두박 보다 kg당 60원 정도 비싼 260원에 묶여있어 국산대두박 사용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이 350억원이 넘고 있다.

한편 대두박 생산업체에 배정된

국산대두량은 22,766t으로 국산대두 가격은 수입대두 보다 1,200원이 비싼 1,431원에 배정 받았다. 이로 인한 대두박 생산업체의 추가부담액은 273억원이어서 이 부담액이 대두박 가격을 상승시켰다.

특히 최근 들어서 수입대두박과 국산 대두박의 가격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 kg당 95원 정도 더 비싼데도 국산 대두박 가격은 내

릴줄 모르고 있다. 이는 사료업체가 국산대두박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국산대두박이 부족한 물량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대두박 생산업체는 국산대두를 배정받기 때문에 국산대두박 가격이 비싸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국산대두로 인한 273억원 보다 대두박으로 인한 부담 350억원이 넘고 있어 대두박 제조업체가 모순된 국가제도를 더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88년도 국산 대두박 가격 조정 때 경제기획원에서는 국산대두에서 오는 부담을 식용유와 대두박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데도 식용유는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대두박은 양축가가 중간에서 흡수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식용유 가격은 묶어놓고 대두박 가격만 인상시켰다는 후문이다.

국산옥수수는 89년에 46,770t을 kg당 441원에 배정받았으며 수입옥수수 가격은 kg당 116원으로 152억원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 수입제한 품목 개방

사료용 대맥과 인산칼슘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료용 대맥은 수입추천품목임에도 행정지시를 통하여 수입이 불가능하다. 국내 보리생산기반

을 저해하고, 타용도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같은 논리가 수입을 금지시킬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밖에 앞서 언급한 대두박 뿐만 아니라 어분, 육골분 등도 수입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배합사료 분야에도 제도상 개선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세 철폐는 실현되어야 하며, 국산옥수수, 대두(대두박), 어분 등 농어민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국제경쟁력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양축가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국민전체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전환시켜야함이 마땅하다.

축산인들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주장해야 한다. 회의석상이나 책상에 앉아 건 의서 몇장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축산업체가 현행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노력에 양계가 들에 대한 일부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양계를 하고있는 당사자들이 너무 무심하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수입개방 이전에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큰 혼란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11월 전 국육계인대회에서 수입결사반대를 외치지 않고 수입개방 이전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저해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준

표2. 배합사료가격 15%인하시 육계 생산비 비교

항 목		kg당비용(원)	15%인하적용	
생	초 생 추 구 입 비	151.41	139.82	
	사 료 비	474.69	403.49	
	경 방 역 비	36.87	36.87	
	연 료 비	32.71	32.71	
	수 도 전 기 료	1.16	1.16	
	깔 짚 비	12.11	12.11	
	산	영 건 물 기 구 상 각 비	22.14	22.14
		수 리 유 지 비	3.65	3.65
		인 건 비	72.68	72.68
		제 세 공 과 금	1.88	1.88
비	비 기 타 잡 비	11.51	11.51	
	비 용 합 계	820.81	738.02	
	(경 영 비) 계	820.81	738.02	
	자 본 이 자	28.13	28.13	
	(생 산 비) 계	848.94	766.15	

후에 수입개방을 하라고 주장하였다. 그후 육계인이나 정부측은 조용하기만 하였다.

“채란계 분야는 설마 생란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육계분야는 계열화 되면 수출도 가능하다는데”라며 자위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화가 만능이 아니며 모든 제반조건이 따라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느 하나 실현되어 손에 잡히는게 없는 상태다.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배합사료를 포함한 원자재, 생산

단계, 산업구조 등 각단계, 각분야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하나인 배합사료 가격은 부가가치세, 관세, 국산곡류 배정이 개선됨으로써 15%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본회가 추정한 육계생산비에 15% 인화된 배합사료 가격을 적용하면 kg당 생산비가 849원에서 9.8%가 인화된 766원이 된다.(표 2 참조)

9.8%의 생산비를 낮추어도 현재 생산비가 세계수준과 격차가 너무 심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그러나 각 분야별 생산비 상승요인을 제거하면 육계 생산비가 600원대 이하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양계인들은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양계인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길만 터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는 반듯이 관철되어야 한다. 양축가들도 앉아서 감떨어지지만 기다릴 때가 아니다. 로비하고, 압력 넣고 안 되면 실행행사도 하겠다는 자세일 때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 계분 처리와 판매에 관한 심포지움 및 닭 관리 자동화 시설 전시회

### 일 정

- |             |        |                       |                             |
|-------------|--------|-----------------------|-----------------------------|
| 09:00-12:00 | 등 록    | 13:00-15:00           | 10만수 규모 채란 양계장에서의 계분 처리와 판매 |
| 10:00-12:00 | 전시물 설명 | 발표자: 시마다(嶋田)          |                             |
| 12:00-12:50 | 중 식    | 통 역: 임덕성(대한양계협회 사무국장) |                             |
| 12:50-13:00 | 개 회    | 15:00-17:00           | 3만수 규모 채란 양계장에서의 계분 처리와 판매  |
|             |        | 발표자: 마에다(前田)          |                             |
|             |        | 통 역: 임덕성(대한양계협회 사무국장) |                             |
|             |        | ○일                    | 시: 1990년 2월 20일(화)          |
|             |        | ○장                    | 소: 축산시험장 대강당(3층)            |
|             |        | ○주                    | 최: 한국가금학회, 축산시험장            |
|             |        | ○후                    | 원: 대한양계협회                   |
|             |        | ○협                    | 찬: 미국대두협회                   |
|             |        | ○참가회비:                | 10,000원(교재 및 중식대)           |